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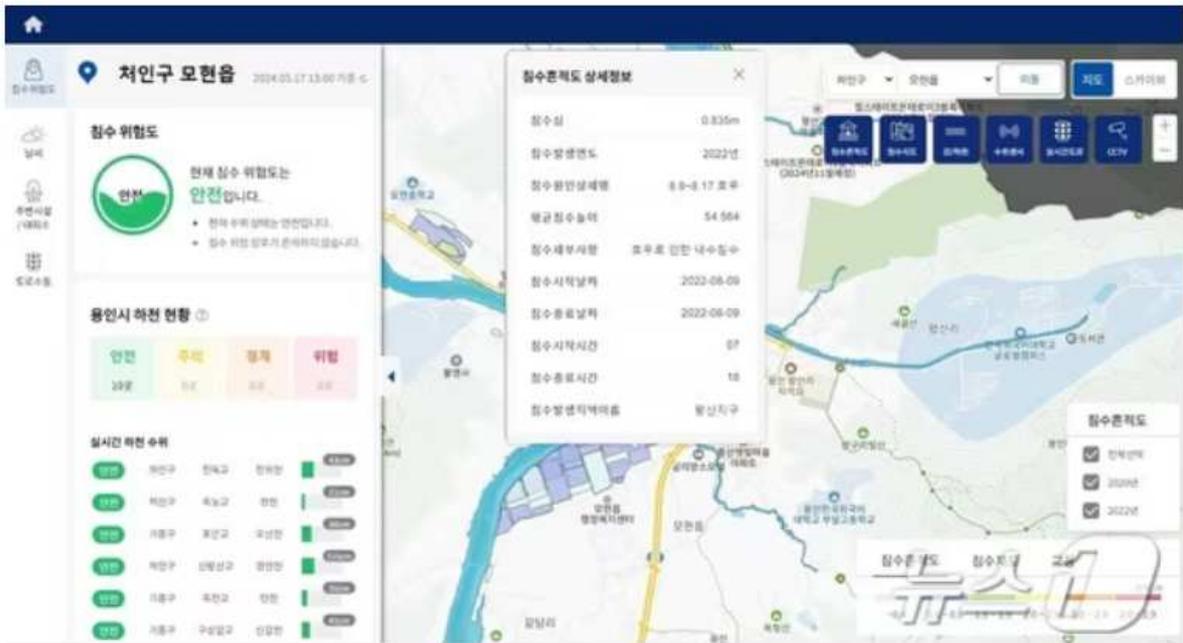
## 목 차

	<b>빅데이터 동향</b> .....	<b>31</b>
<b>정책</b>	- “기상재난 피해예방” 용인시, ‘침수 빅데이터’ 안전행정예 활용 .....	31
	- 경남소방본부, 빅데이터 분석으로 온열질환 대응 강화 .....	32
	- 축평원, 축산 데이터 선도기관으로 도약 .....	33
	- 문체부, 관광데이터 분석과 관광기술 연구개발 필요성 논의 .....	34
	- 빅데이터·인공지능 활용 노지 스마트농업 속도 낸다 .....	35
	- 한국임업진흥원 "산림 자원 미래, 빅데이터로 예측·관리" .....	36
	- 119빅데이터로 산악사고 예방하고 구급차 배치 기준 마련한다 .....	37
	- ‘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’ 정식 운영 시작 .....	38
	- 육군, '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' 만든다...미군 LDAC 벤치마킹 .....	39
<b>기업</b>	- '기차표 못 사 찢찢'...노년층 디지털 정보격차, 빅데이터로 분석한다 .....	40

## “기상재난 피해예방” 용인시, ‘침수 빅데이터’ 안전행정에 활용

- 경기 용인시, 기상악화에 따른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침수 현황 빅데이터를 구축해 안전 관련 행정에 활용 중
  - 용인시는 ‘용인시 빅데이터 분석플랫폼’에 ‘침수 현황 빅데이터 서비스’를 운영하여 장마철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
- 이 서비스는 지역 내 기상관측시스템을 실시간 수위센서에 연결해 하천수위 위험도를 표시하고, 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공간 정보화로 구현해 위험도를 산출
  -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지역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위험 여부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구현

〈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침수 재난 대응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(출처: 용인시) 〉



- 과거 데이터인 침수흔적도와 예측 데이터인 침수지도, 현황 데이터인 강·하천 데이터를 활용해 강수 현황에 따른 침수위험도 분석 예측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  - 시 관계자, “지난해 구축한 ‘용인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’의 고도화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등 외부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”이라며 “지진과 화재 등 재난분석 분야를 확대하고, 향후에는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”이라고 밝힘

출처 : 뉴스1, “기상재난 피해예방” 용인시, ‘침수 빅데이터’ 안전행정에 활용 (2024.5.22.)

## 경남소방본부, 빅데이터 분석으로 온열질환 대응 강화

- 경상남도소방본부, 11일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, 이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힘
  -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총 2,818명으로 1년 전보다 80.2% 급증한 상황
- 최근 5년 간 경남과 부산 지역 구급활동 데이터 19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, 온열질환 관련 출동 건수는 총 698건이며, 그중 568건(81.4%)이 경남 지역에서 발생
  - 월별로는 7월 260건, 8월 325건이 발생해 전체의 83.8%를 차지했으며, 발생 시간대는 오후 3시가 108건(15.5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특히 오전 11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체의 73.9%가 발생해 낮 시간대 집중 발생 경향을 보임

〈 온열질환 발생 시각화 지도 (출처: 경남소방본부) 〉



- 경남소방본부 소방빅데이터담당, "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, 소방서 및 시·군과 공유해 예방·대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"고 밝힘

출처 : 뉴시스, 경남소방본부, 빅데이터 분석으로 온열질환 대응 강화 (2024.6.11.)

## 축평원, 축산 데이터 선도기관으로 도약

- 축산물품질평가원, 27일 '2024년 공공데이터 활성화·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정착'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해 축산데이터의 대국민 환류 비전을 공유하고,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
  - 축산물품질평가원은 △공공데이터 개방·활용을 위한 민간 협력 △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△데이터 분석·활용 역량 관리 △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기관 협업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해 축산분야 데이터 선도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
- 축산물품질평가원은 '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'으로 선정된 바 있음
  -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하는 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'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(가칭)'을 구축해 수집 데이터의 표준화 규격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

〈 축산물품질평가원 선포식 개최 자료사진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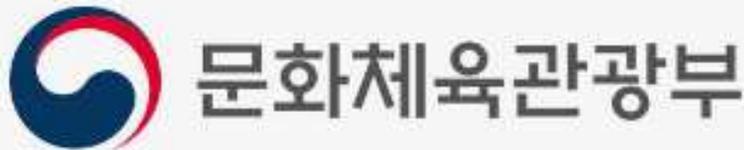
-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, "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"라며
  - "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축산분야 데이터 총괄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힘

출처 : 보건뉴스, 축평원, 축산 데이터 선도기관으로 도약 (2024.5.29.)

## 문체부, 관광데이터 분석과 관광기술 연구개발 필요성 논의

-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관광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28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‘한국관광 데이터 얼라이언스 세미나’를 개최
  - 관광기술(트래블테크)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‘빅데이터’와 ‘인공지능’은 향후 관광객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상품을 추천하고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>



- 이번 세미나에서는 ‘트래블테크 분과’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혁신한 관광기술 사례를 공유하였고, ‘빅데이터 분과’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한 우수사례도 공유함
- 또한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래관광객들의 이동과 소비 유형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
  -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데이터상 인기 관광지는 ‘신당동’과 ‘여의도’, ‘제주도’로 나타났으며, 특히 여의도 ‘더현대 서울’은 중국, 일본, 대만 방문객이 폭증해 K쇼핑의 성지로 자리 잡은 상황
  - 이를 통해 내국인의 인기 관광지가 외국인도 선호하고 방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향후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면 빅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융합한 보정방식 고도화 등의 데이터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
-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, “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대응하고 국제 관광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”이라며
  - “앞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혁신 관광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관광데이터 분석과 관광기술 연구개발 필요성 논의하다 (2024.5.28.)

## 빅데이터·인공지능 활용 노지 스마트농업 속도 낸다

- 전라남도, 13일 나주 반남면의 첨단 무인 인공지능(AI) 농업 관제센터에서 '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' 준공식을 개최
  -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DNA(Data·Network·AI) 기반 노지 스마트농업의 1세대 모델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
  - 올해에는 데이터를 축적해 안정성을 확보하고,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

<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준공식 (출처: 전라남도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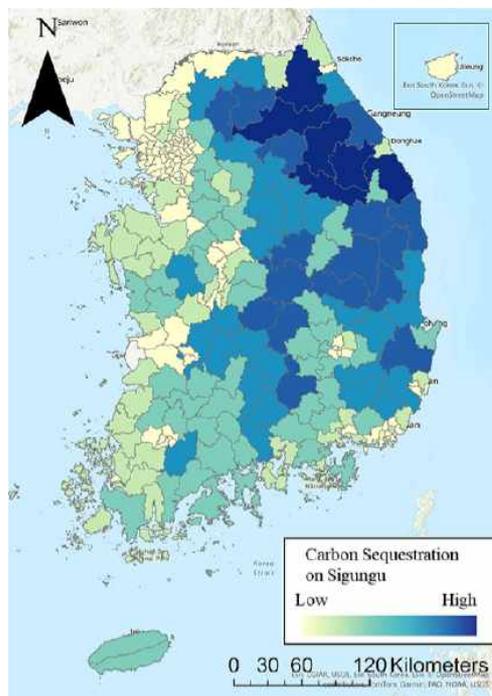
-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기본설계 수립으로 시작됨
  - 2021년부터 전남도농업기술원, 전남대학교, 한국농어촌공사, LG CNS, 대동·LS 농기계 등 다양한 농업 및 정보기술(IT) 분야 전문기관·기업과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
  -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중심으로 기대되는 본 시범단지는 전체 54.3ha의 부지에 논 30.5ha, 밭 20.6ha, 건축면적 3.2ha로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됨
  - 주요 내용은 △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작업 통합플랫폼 구축 △지능형 물 공급 및 관리 시스템 구축 △관제센터 등 첨단 건축물 구축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통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있음
- 김영록 전라남도지사, "농업의 환경적·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농업의 정의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받고 있다"며
  - "이번에 준공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은 미래를 향한 농업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많은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뤄가기를 희망한다"고 밝힘

출처 : 하이테크정보, '빅데이터·인공지능 활용 노지 스마트농업 속도 낸다 (2024.6.13.)

## 한국임업진흥원 "산림 자원 미래, 빅데이터로 예측·관리"

-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, 산림과학기술 출연 R&D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림경영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
  - 기후변화와 산림 재난대응 등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산림자원 예측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
  - 이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(R&D) 사업의 일환인 '산림자원 예측모델'과 '스마트 산림경영 시스템 개발'을 진행

〈 스마트 산림경영 시스템 탄소흡수지도 (출처: 산림청) 〉



-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고안한 산림자원경영모델을 활용해 국가단위(광역시·도)부터 시군단위(읍·면·동·리)까지 산림경영 시나리오에 따른 1ha 공간 해상도의 산림 탄소흡수지도를 완성하는데 성공
  - 진흥원 관계자, "시각적으로 탄소 흡수·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고, 마을(리) 단위의 분석과 관리방안 모색이 가능하여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"고 설명
  - 또한 "본 시스템 활용은 개인 산주<마을<시·군으로 연계되는 지역 단위 공·사유림 경영계획 수립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힘

출처 : 조이뉴스24, 한국임업진흥원 "산림 자원 미래, 빅데이터로 예측·관리" (2024.5.24.)

## 119빅데이터로 산악사고 예방하고 구급차 배치 기준 마련한다

- 소방청,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현장대응을 위해 '2024년 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'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힘
  -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소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며, 해마다 다양한 분야 분석 과제를 선정해 진행해 오고 있음

< 구급차량 자료사진 >



- 소방청은 올해 과제 선정을 위해 앞서 시·도 소방본부, 대학교, 유관단체 등 146개 소방관련 기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76개의 소방 현안을 발굴
  - 이 가운데 6개 분야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, 분석 사업은 12월까지 수행할 예정
- 구조 분야에서는 '산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수 발생 지역 및 구조 지점 분석' 과제가 선정되었으며,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위치에 대한 세부분석으로 위험지역 정보를 미리 제공해 산악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
- 구급 분야의 '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 구급차 적정 배치에 대한 연구' 과제는 이송시간과 중증응급환자 비율, 관할 면적 등 구급업무에 미치는 주요 변수를 기반으로 구급차 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
-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, "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분석과 예측으로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"며 "앞으로 데이터 분석영역을 확대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"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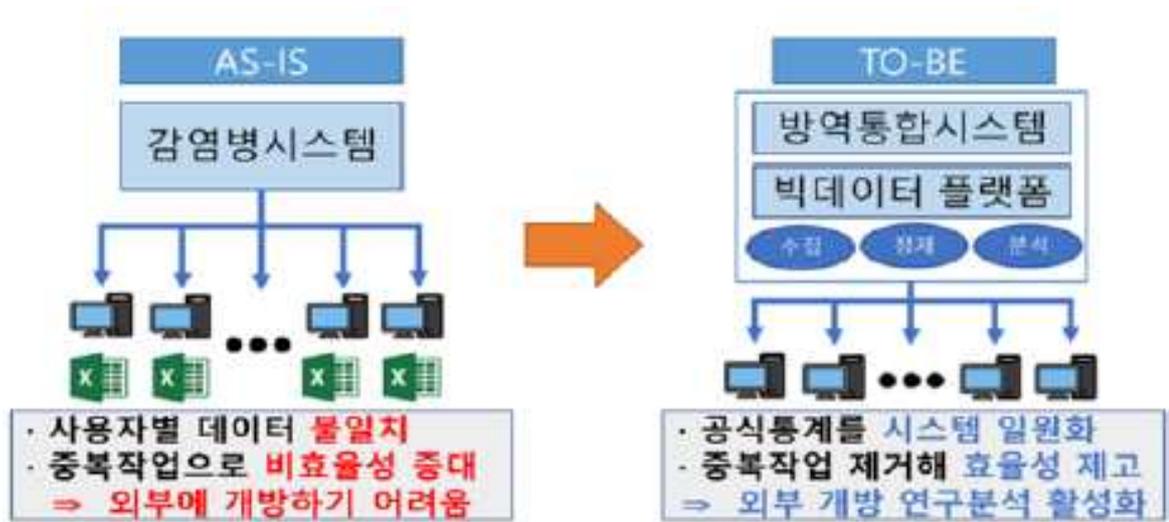
출처 : 뉴스1, 119빅데이터로 산악사고 예방하고 구급차 배치 기준 마련한다 (2024.6.13.)

## ‘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’ 정식 운영 시작

### ■ 질병관리청, 6월 10일부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식 운영 시작

- 질병청은 앞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별 역학조사 정보를 연구분석에 용이하도록 표준화했으며, 그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올해 구축하였음

〈 빅데이터 플랫폼 기대효과 〉



-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 1월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여 민간에서도 감염병 정책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
- 지영미 청장, “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방역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”며
  - “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분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의학신문, ‘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’ 정식 운영 시작 (2024.6.10.)

## 육군, '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' 만든다...미군 LDAC 벤치마킹

- 육군,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군수 분야에 활용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
  - 육군은 미국 육군의 군수데이터분야 전문조직인 '물류데이터분석센터(LDAC)'를 벤치마킹해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운용하기로 함
  - LDAC는 전략적 지원 영역에서 고위 지도자의 '결심' 과정까지 지원하기 위해 물류 관련 데이터와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이에 따라 육군 군수사령부는 최근 '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 구축 방안'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,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임

< 미국 시누크 헬기가 전술부교를 수송하는 장면 (출처: 국방부) >



- 군수사령부, "국내외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보와 융합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군수 정보화는 단순 운용지원 위주로 성장하는 형태" 라며
  - "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관점의 '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' 조직 구축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"라고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
  - 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는 군수 데이터 관리 및 분석·활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현재 여러 정보체계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·분석해 빅데이터를 도출하고 AI를 활용해 효과적인 군수지원 정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

출처 : MoneyS, 육군, 'AI군수빅데이터융합센터' 만든다...미군 LDAC 벤치마킹 (2024.6.9.)

## '기차표 못 사 찢찢'...노년층 디지털 정보격차, 빅데이터로 분석한다

- SKT, 통계청 · 창원시와 함께 노년층의 정보 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
  -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었으며,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량이 전체 평균 사용량의 20% 수준으로 나타남
- 고연령층에서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한편, 금융·쇼핑 등 생활 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
  - SKT는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확인
  - 또한 저소득층 노년층의 디지털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며,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발견

〈 창원미래포럼 회의장면 (출처: SKT) 〉



- 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, 행정동별 고립 규모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
- SKT, "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"이라며
  - "통신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머니투데이, '기차표 못 사 찢찢'...노년층 디지털 정보격차, 빅데이터로 분석한다 (2024.6.2.)